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 | 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
http://www.mke.go.kr

자료문의 : 최규종 전력진흥과장(2110-4660), 성보경 사무관(2110-4662)

전기요금 평균 4.0% 인상

- 동계 전력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 인상 -

요금 조정

□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공사('한전')가 1월 8일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해 1월 14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.0% 인상된다고 밝힘

□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어려운 동계 전력수급을 감안하여, 전기요금의 가격 시그널 기능 회복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인상율이 적용되었으며, 경제 주체별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인상율을 차등 조정한 것이 특징임

○ **(주택용)**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, 평균 이하인 2.0% 인상

○ **(산업용·일반용)** 산업용·일반용 고압요금은 각각 4.4%, 6.3%로 평균 이상 인상하되,

-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, 산업용·일반용 저압요금은 각각 3.5%, 2.7%로 평균 이하 인상

○ **(교육용, 농사용)** 교육용, 농사용 요금은 각각 3.5%, 3.0%로 평균 이하 인상

< 용도별 조정률 >

구 분	평균	주택	일반	산업	교육	가로	농사	심야
조정률(%)	4.0	2.0	4.6 (저압:2.7,고압:6.3)	4.4 (저압:3.5,고압:4.4)	3.5	5.0	3.0	5.0

제도개선 내용

□ 향후 제조업, 서비스업간 융합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와 용도별 소비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, 원가에 기반한 '전압별 요금체계'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, 금번 요금 조정시에는 요금 수준이 유사한 '일반용(을)·산업용(을)*' 요금단가표를 우선 통합함

* 일반용(을)·산업용(을): 계약전력 300kW 이상

○ 또한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'지식서비스산업' 특례 요금표는 현재 요금 수준을 고려하여, 일반용의 3% 할인규정으로 변경함(~'14년까지)

□ 한편, 전기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전력사용 패턴을 유도하기 위하여, 현재 일반용·산업용 계약전력 300kW 이상에 적용중인 수요관리형 요금제(계절별·시간대별 차등요금제) 적용대상*을 일반용·산업용 고압 사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키로 하였음 (5.1부터 적용)

* 스마트 계량기 보급상황에 따라 수요관리형 요금제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

보완대책

□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, 지난 '12.12월 종료된 '전통시장 요금할인 특례'('11.8월~'12.12월)를 1년간 연장(5.9% 할인)키로 하였으며,

○ 기존에 산업용 또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던 일부 교육시설에 대하여, 상대적으로 저렴한 교육용 요금을 적용하여 부담을 완화할 계획임

* 기능대학, 한국농수산대학, 특별법에 따른 학력 인정 교육기관

□ 기초생활수급자·장애인·상이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최소전력 사용량(약 110kWh/월)을 계속해서 보장키로 하였음
(현행대로 월 8,000원 정액감면 하고, 차상위계층은 2,000원 정액감면)

* 형광등 5개, TV(30인치), 냉장고(600리터), 세탁기(10kg) 사용시 전력량

□ 한편 정부는 향후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, 한전에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 노력을 지속 요구키로 함

*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 요청

기대효과

□ 지식경제부는 금번 전기요금 조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전력 피크 감축효과가 약 75만kW(요금조정: 60만kW 감축, 시간대별 차등요금 확대: 약 15만kW 감축)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

○ 또한, 도시 가구는 월평균 930원(4.66만원→4.75만원), 산업체는 월평균 27만원(611만원→638만원)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

□ 한편, 소비자 물가는 0.04%p, 생산자 물가는 0.105%p, 제조업 원가는 0.05%p 상승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